

# 한일 친족호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인척관계를 중심으로 -

홍민표\*\*

hmp@kmu.ac.kr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조사의 개요    |
| 2. 인척 호칭의 표준화법 | 5. 조사결과 및 고찰 |
| 3. 선행연구의 검토    | 6. 마무리       |

Key word : 혈족(consanguinity), 인척관계(relation by marriage), 배우자 가족(family of spouse), 형제자매 배우자(spouse of siblings), 양성불평등(gender inequality)

## 1. 머리말

일본에서는 결혼을 해도 새로운 친족명칭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 ‘형수’ ‘제수’와 같은 많은 친족명칭이 새로 생겨난다. 즉 친족호칭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척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인척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친족호칭 체계가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인의 대화에서 상대방 인척관계의 친족호칭을 적절히 이해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호칭과 마찬가지로 인척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도 연령의 차이, 결혼여부, 개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525).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적인 친소도나 자녀의 유무관계 등의 제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표준화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인척호칭에 대한 표준 화법을 비교, 검토한 후,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대조,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가족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호칭 실태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2. 인척 호칭의 표준화법

### 2.1 배우자 가족호칭의 한일 비교

<표1>은 배우자 가족에 대한 한일 양국의 친족명칭과 호칭의 표준화법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sup>1)</sup>, 이것을 보면 한국어는 상대별로 별도의 친족명칭이나 호칭이 있는데 비하여 일본어의 인척에 대한 친족명칭은 기본적으로 혈족관계의 친족명칭인 「父」, 「母」, 「兄」, 「弟」, 「姉」, 「妹」 등에 접두어 「義」를 붙여 「義父<sup>2)</sup>」, 「義母」, 「義兄」, 「義弟」, 「義姉」, 「義妹」로 되어 있고, 인척에 대한 친족호칭은 혈족관계와 마찬가지로 손위 사람은 「お父さん」, 「お母さん」, 「お兄さん」, 「お姉さん」과 같은 친족호칭으로 부르고 손아래 사람은 「〇〇さん」, 「〇〇くん」, 「〇〇ちゃん」과 같이 이름에 인칭접미사를 붙여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국립국어원에서는 일상의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1992년에 “표준화법해설”을 간행하였고, 9년 후인 2011년 12월에는 사회변화를 반영, 보완해서 “표준언어예절”을 간행한바 있는데, <표1>과 <표2>의 한국어 친족명칭 및 호칭은 후자인 “표준언어예절”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며(pp.19-72), 일본어는 강병주(2011), 박경 외(2007), 도은진(2000), 홍민표(1999)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

2) 실제 호칭에서는 「義理の父」, 「義理の兄」 등과 같이 사용된다.

&lt;표1&gt; 배우자 가족 호칭의 한일 비교

화자	호칭대상자	한국어		일본어		
		친족명칭	친족호칭	친족명칭	친족호칭	
남성	아내의 부친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義父/舅	お父さん	
	아내의 모친	장모	장모님 어머님	義母/姑	お母さん	
	아내의 오빠	처남	형님	義兄	お兄さん ○○さん	
	아내의 언니	처형	처형	義姉	お姉さん ○○さん	
	아내의 남동생	처남	처남/자네	義弟	○○くん	
	아내의 여동생	처제	처제	義妹	○○さん ○○ちゃん	
여성	남편의 부친	시아버지(님) 아버님	아버님	義父/舅	お父さん	
	남편의 아내	어머님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義母/姑	お母さん	
	남편의 형님	아주버니	아주버님	義兄	お兄さん ○○さん	
	남편의 누님	형님	형님	義姉	お姉さん ○○さん	
	남편의 남동생	기혼	서방님	서방님	義弟	○○さん くん
		미혼	도련님	도련님	義弟	○○さん ○○くん
	남편의 여동생	기혼	아가씨 아기씨	아가씨 아기씨	義妹	○○さん ○○ちゃん
		미혼	아가씨 아기씨	아가씨 아기씨	義妹	○○さん ○○ちゃん

그러나 시아버지나 장인은 「舅」, 시어머니나 장모는 「姑」라는 별도의 친족 명칭이 있고, 아내의 오빠나 남편의 누님을 한국어에서는 ‘형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일본어에서는 「お兄さん」, 「お姉さん」으로 부르는 점은 한국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1>에서 남편 가족에 대한 한국어의 친족명칭은 대부분 고유어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아내의 가족에 대한 친족명칭은 예외 없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sup>3)</sup>. 그리고 남편의 동생명칭이나 호칭에는 높임의 접미사 ‘씨’나 ‘남’이 붙어 있지만, 아내의 동생명칭에는 이와 같은 인칭접미사가 없다는 것은 호칭의 양성불평등적인 요소로서 지적할 수 있다.

## 2.2 형제자매 배우자 호칭의 한일비교

<표2>는 형제자매 배우자 호칭의 표준화법을 한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 <표1>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칭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妹兄’‘妹弟’‘弟嫂’‘妹夫’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어에서도 『姉婿』『弟嫁』『妹婿』라고 하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호칭 면에서 보면 한국어는 인척에 대한 별도의 호칭으로 부르는데 비해서 일본어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혈족의 형제자매 호칭과 동일하게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혈족의 형제자매 호칭에서도 일본어에서는 화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손위의 남자형제는 『お兄さん』, 여자형제는 『お姉さん』으로 부르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은 손위의 남자형제라도 화자의 성(性)에 따라 남동생은 ‘형’, 여동생은 ‘오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척관계의 친족호칭에서도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성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손위 여자형제의 배우자라도 화자가 남동생이면 ‘매형(妹兄)’, 여동생이면 ‘형부(兄夫)’로 부르고 남동생의 배우자라도 형은 ‘제수(弟嫂)’, 누나는 ‘올케’라고 부른다. 뿐 만 아니라 형제간의 상하에 따라서도 호칭이 바뀐다. 예를 들어, 남자 형제가 3명인 경우, 둘째의 배우자를 동생은 ‘형수’, 형은 ‘제수’라 부르고, 여자 형제도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의 배우자를 동생은 ‘형부(兄夫)’, 언니는 ‘제부(弟夫)’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인척관계의 친족호칭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화자의 성(性)과 상하관계에 따라 일본어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김규선(198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친조부를 ‘할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후자는 어휘의 造成이 ‘외래어+고유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중국문화권 영향 이후의 것이 틀림없을 것이며 또 이것이 한어인 ‘祖父’의 직역어라 본다면 적어도 이 말은 麗末 이후에 전래된 朱子家禮나 明律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하는 말이다(p.73).

&lt;표2&gt; 형제자매 배우자 호칭의 한일비교

화자	호칭 대상자	한국어		일본어	
		친족명칭	친족호칭	친족명칭	친족호칭
남성	형님의 배우자	형수	형수님/아주머님 /아주머니	義姉	お姉さん ○○さん
	누님의 배우자	매형/자형/매부	매형/자형/ 매부	姉婿	お兄さん ○○さん
	남동생의 배우자	제수/계수	제수씨/계수씨	弟嫁	○○さん ○○ちゃん
	여동생의 배우자	매부/매제	○서방/매부 /매제	妹婿	○○さん ○○くん
여성	오빠의 배우자	새언니 언니	언니/새언니	義姉	お姉さん ○○さん
	언니의 배우자	형부	형부	姉婿	お兄さん ○○さん
	남동생의 배우자	올케	올케	弟嫁	○○さん ○○ちゃん
	여동생의 배우자	제부	○서방/제부	妹婿	○○さん ○○くん

### 3.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친족호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친족호칭의 체계를 기술한 것이 많으며 실태조사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일 양국어의 친족호칭을 대조, 분석한 연구는 필자의 관견(管見)에 의하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본고와 테마가 밀접한 친족호칭의 한일 대조연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林炫情(2001)은 2000년 2월에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회사원과 공무원 231명(한국인 127명, 일본인 104명)을 대상으로 ① 형제자매 호칭, ② 배우자 형제자매 호칭, ③ 부모호칭, ④ 「おじ・おば」호칭, ⑤ 「甥・姪」호칭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대조, 분석한 것으로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다만, 배우자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미혼자에게 사용하는 ‘도련님’과 기혼자에게 사용하는

‘○○아빠’‘서방님’‘고모’‘○○엄마’가 동시에 혼재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강병주(2009)에서는 2009년 2월에 한국인 147명, 일본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어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 배우자 호칭과 부모의 형제자매 및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을 대조, 기술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각 호칭별 사용실태와 선별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홍민표(2012)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한일 양국의 대학생 614명(한국 263명, 일본 351명)을 대상으로 숙질관계인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호칭을 조사하고 고찰한 결과, 일본어는 「おじさん」이나 「おばさん」으로 단순화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남녀, 연령, 결혼여부, 세대 등에 따라 ‘이모’ ‘고모’ ‘(큰/작은)아버지’ ‘(큰/작은)외삼촌’ 등과 같이 훨씬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부모와 동세대인 자에 대하여도 연령이 비슷하거나 친한 경우에는 「お兄さん」 「お姉さん」처럼 자기세대의 친족 호칭이 일부 사용된다는 점도 일본어 친족호칭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Field Work에 의한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한일 양언어의 친족명칭이나 호칭을 대조언어학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연구로는 홍민표(1999), 도은진(2000) 등이 있고, 중국어까지 포함한 한중일 3개국의 친족호칭을 대조적으로 기술한 박경 외(2007) 등이 있다.

#### 4. 조사의 개요

조사는 2011년 6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한국은 서울과 대구, 전주, 충청 지역, 일본은 동경과 오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앙케트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informant)는 유의선택방식(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한국인 367명(남자 172명, 여자 195명), 일본인 285명(남자 132명, 여자 153명), 계 652명이다. 조사대상자

의 연령 분포는 한일 양국인 공히 30세-59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이며, 평균연령은 한국인 남자 43.2세, 여자 40.5세, 일본인 남자 44.5세, 여자 41.2세이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1)배우자 부모 호칭, (2)배우자의 형제자매 호칭, (3)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에 적혀있는 해당 인척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호칭을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였고,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호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직접 기입하도록 의뢰하였다.

## 5. 조사결과 및 고찰

### 5.1 배우자 부모호칭

#### 5.1.1 남편부모 호칭

<표3>남편부모 호칭의 한일 비교

남편 부친				남편 모친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아버님	98.1	おとうさん	93.7	어머님	96.2	おかあさん	92.2
기타	1.9	기타	6.3	기타	3.8	기타	7.8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표3>의 남편 부모의 호칭 실태를 보면 우선 한일 양국 마찬가지로 친족명칭인 ‘아버님’ ‘어머님’과 「おとうさん」 「おかあさん」으로 부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일 양국어의 배우자 부친이나 모친은 부칭(父稱)과 모칭(母稱)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다만, 한국어의 경우, 친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남편의 부모는 인척인 관계로 존칭의 접미사 ‘님’을 붙여서 부르지만, 일본어에서는 친부모와 완전히 동일한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1.2 아내부모 호칭

<표4>의 아내 부모의 호칭 실태를 보면 일본어는 남편의 부모호칭과 마찬가지로 「おとうさん」과 「おかあさん」으로 부르지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친족호칭인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 부르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어는 상호 배우자의 부모호칭이 동일하지만, 한국어는 인척의 원리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부모에게 자신의 친부모와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지만,

<표4> 아내부모 호칭의 한일 비교

아내 부친				아내 모친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장인어른	75.5	おとうさん	94.0	장모님	76.7	おかあさん	92.7
아버님	23.9	기타	6.0	어머님	22.7	기타	7.3
기타	0.6	-	-	기타	0.6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남편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라는 별도의 친족호칭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표4>에서 보듯이 아내 부모호칭에서도 일본어처럼 ‘아버님’과 ‘어머님’, 즉 자기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는 호칭이 23% 전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큰 변화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5.2 배우자 형제자매 호칭

### 5.2.1 남편 형님과 누님 호칭

<표5> 남편 형님과 누님 호칭의 한일비교

남편 형님				남편 누님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아주버니	96.9	おにいさん	68.1	형님	94.3	おねえさん	75.5
기타	3.1	이름+さん	25.5	기타	5.7	이름+さん	20.4
-	-	기타	6.4	-	-	기타	4.1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표5>의 남편 형님과 누님의 호칭 실태를 보면 한국어는 친족명칭인 ‘아주머니’와 ‘형님’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어도 『おにいさん』과 『おねえさん』과 같은 친족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즈키(鈴木, 1973)나 와타나베(渡辺, 1978)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형님, 누님과 같이 자신보다 연장자는 친족명칭으로 부르고 연소자는 개인이름으로 부른다는 일본어 친족호칭의 특징은 한일 양국의 친족호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다만 일본어의 경우, 남편의 형님이나 누님을 개인이름에 『さん』을 붙여 부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25% 전후 있는데 이것은 비록 남편의 형님이나 누님이지만, 본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에 『おにいさん』이나 『おねえさん』과 같이 상하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친족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한국어 친족호칭에서는 연령이 본인보다 아래라도 족보상 상위자에게 개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호칭을 생략하거나 회피하는 전략(strategy)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林炫情(2001)에서도 배우자의 순위 형제를 『이름+さん』으로 부르는 것은 배우자의 순위 형제가 본인의 친형이나 친누나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고, 또한 인척이라는 심리적 거리감도 있기 때문에 『兄』『姉』라는 친족호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상하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려는 화자의 심리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p.66).

### 5.2.2 아내 오빠와 언니 호칭

<표6>의 아내 오빠, 언니에 대한 호칭실태를 보면 일본어는 <표5>의 남편의 형님이나 누님호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おにいさん』『おねえさん』과 『이름+さん』으로 부르고, 한국어의 경우,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는 같은 친족명칭인 ‘처남’의 비율이 ‘처형’의 반도 안 되고 대신에 형제간에 사용하는 ‘형님’의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다는

4) 단, 이와 같은 원칙은 일본어에서는 혈족이나 인척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혈족호칭에는 적용되고 인척호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인척호칭에서는 자기보다 연소자라도 기본적으로 ‘처남’·‘처제’·‘도련님’처럼 별도의 친족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아내의 손위 형제이지만 남성에게는 존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여성에게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인데, 이는 한국어의 친족호칭 체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아내의 손위 여자형제는 ‘처형’, 동생은 ‘처제’라는 호칭으로 상하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남자형제의 경우는 상하 구분 없이 ‘처남’이라는 친족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손위처남과 손아래 처남을 구분하기 위해서 손위 처남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손아래 처남에게는 ‘처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손위 처남을 전부 ‘형님’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 <표5>나 <표6>의 일본어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자 손위 처남과의 연령 차이에 따라 『お兄さん』(또는『おねえさん』)과 『이름+さん』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한국어의 ‘형님’과 ‘처남’도 손위 처남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형님’으로 부르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거나 비슷하면 ‘처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6> 아내 오빠와 언니 호칭의 한일비교

아내 오빠				아내 언니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형님	58.9	おにいさん	70.3	처형	97.5	おねえさん	70.3
처남	38.6	이름+さん	25.9	기타	2.5	이름+さん	25.9
기타	2.5	기타	3.8	-	-	기타	3.8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 5.2.3 남편 남동생 호칭

<표7>의 남편의 남동생 호칭실태를 보면 일본어는 결혼 여부에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어는 호칭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어 친족 호칭에는 <표7>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에 『さん』이나 『くん』을 붙여 남편 남동생을 부르는데 남동생이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인 경우보다 『くん』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혼인 경우에는 미혼보다 『さん』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의한 『さん』과 『くん』의 차이도 있지만, 같은 미혼이나 기혼의 시동생이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くん』을 사용하고 비슷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さ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남편 동생 호칭은 친족 조직상 아내가 상위자이지만, ‘도련님’이나 ‘서방님’처럼 존칭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호칭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존칭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녀가 있으면 ‘삼촌’이나 ‘고모’와 같은 연소자 시점 호칭)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종자명 호칭6)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7> 남편 남동생 호칭의 한일비교(%)

한국어				일본어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도련님	74.6	서방님	49.8	이름+さん	55.8	이름+さん	63.8
삼촌	16.9	삼촌	34.1	이름+くん	34.9	이름+くん	29.8
기타	8.4	○○아빠	6.6	기타	9.3	기타	6.4
-	-	기타	9.5	-	-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 5.2.4 아내 남동생 호칭

<표7>에서 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전혀 없고 대부분 ‘도련님’이라는 존칭의 친족명칭으로 부르는데 비해서, <표8>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치남(妻男)’이라는 친족명칭 외에 이름으로 부른다는 비율도 30%(미혼인 경우) 가까이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호칭에서는 동기간 친족의 경우에는

- 5) 박경 외(2007)에서는 화자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호칭하느냐에 따라 화자중심용법과 타자중심용법으로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화자가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부르는 호칭을 화자중심호칭,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자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화자가 호칭의 중심을 제3자에 두고 부르는 호칭을 타자중심용법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타자중심호칭은 와타나베(渡辺, 1978)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를 「お父さん・お母さん」이라고 하거나, 자신(배우자)의 부모를 「お祖父さん・お祖母さん」이라고 하는 것처럼 최연소자 입장에서의 호칭을 일본어 친족어휘 특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도은진(2000)에서는 이와 같이 가정 내 최연소자의 시점으로 이행시켜 부르는 호칭을 ‘호칭의 시점이행’으로 부르고 있다(pp.12-14). 그러나 반드시 최연소자의 시점에서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호칭을 폭넓게 ‘연소자 시점호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 6) 알려진 것처럼 ‘○○아빠’ ‘○○엄마’와 같이 자녀의 이름에 기대어 부르는 호칭을 영어로는 ‘*tekonymy*’라고 하고, ‘부산택’처럼 지역 명에 의지해서 부르는 호칭을 ‘*geonymy*’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이광규(1984)에서 ‘종자명제’ ‘종지명제’라고 번역했고, 이것을 다시 왕한석(1989)에서 ‘종자명 호칭’ ‘종지명 호칭’으로 수정, 제안한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령에 따라 상하가 결정되고 호칭은 이를 기준으로 연장자는 친족호칭으로 부르고 연소자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한국어 호칭법의 일반적인 기준이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아내가 남편 남동생을 부를 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 친족호칭에는 연령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남성중심의 친족조직에 의한 부부양성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남편 남동생 호칭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체에도 나타나며<sup>7)</sup>, 일본어에도 나타난다.

<표8> 아내 남동생 호칭의 한일비교(%)

한국어		일본어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처남	70.9	처남	85.4	이름+<くん>	70.4	이름+<くん>	70.4
이름	27.8	이름	7.3	이름+<さん>	22.2	이름+<さん>	25.9
기타	1.3	○○아빠	6.7	기타	7.4	기타	3.7
-	-	기타	0.6	-	-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즉, <표7>에서 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 남동생을 부를 때는 「○○さん」은 55.8%로 높아지고 「○○くん」은 34.9%로 줄어들지만, <표8>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부를 때 「○○さん」은 22.2%에 지나지 않고 「○○くん」의 비율이 70.4%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주로 「○○くん」을 사용하고, 아내가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주로 「○○さん」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어 친족호칭에도 한국어와 유사한 양성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2.5 남편 여동생

<표9>의 남편 여동생의 호칭 실태를 보면, 한국어는 여동생이 미혼인 경우에는 ‘아가씨’가 78%에 이르지만, 기혼인 경우에는 ‘아가씨’는 35.5%로 줄고 ‘고모’가 48.2%에 이르고 있고 ‘작은아씨’와 ‘종자명 호칭’도 보조적으로 사용

7) 조태린(2011)에서는 ‘해라체/해체’의 사용은 아내보다 남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해요체/하세요체’의 비율은 남편보다 아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부부간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p.175).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어는 남편 남동생의 경우(표7)에는 「さん」과 「くん」이 사용되는데 비해 여동생은 이름에 「さん」과 「ちゃ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개인적으로 친하면 「ちゃん」을 사용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さん」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나이나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친족호칭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호칭은 일본어 친족호칭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표9> 남편 여동생 호칭의 한일비교(%)

한국어		일본어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아가씨 77.9	고모 48.2	이름+さん 61.4	이름+さん 68.9		
고모 13.0	아가씨 35.5	이름+ちゃん 36.4	이름+ちゃん 26.7		
작은아씨 7.1	작은아씨 6.6	기타 2.2	기타 4.4		
기타 2.9	○○엄마 5.3	-	-		
-	기타 4.4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 5.2.6 아내 여동생

<표10> 아내 여동생 호칭의 한일비교(%)

한국어		일본어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처제 84.5	처제 86.9	이름+さん 53.6	이름+さん 65.5		
이름 13.2	○○엄마 7.5	이름+ちゃん 42.9	이름+ちゃん 31.0		
기타 1.3	이름 5.6	기타 3.5	기타 3.5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표10>의 아내 여동생의 호칭 실태를 보면 한국어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친족명칭인 ‘처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친족호칭에서는 전술한대로 손아래 혈족에 대해서는 ‘동생!’ ‘조카’와 같이 친족명칭으로 부르지는 않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비해 <표 7, 8, 9, 10>에서 보아 온 것처럼 배우자의 동생, 즉 인척호칭에서는 자기보다 연소

자라도 ‘도련님’ ‘처남’ ‘처제’와 같이 친족명칭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호칭은 상대 친족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혈족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호칭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도 <표9, 10>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보다 연소자인 배우자 동생에게 「さん」을 붙여 부르는 비율이 남동생에게는 25% 전후, 여동생에게는 60% 전후에 이르는 것은 인척관계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한 호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 5.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호칭

#### 5.3.1 형님 부인과 누님 배우자 호칭

<표11>형님 부인과 누님 배우자 호칭의 한일비교(%)

형님 배우자		누님 배우자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형수님	73.4	おねえさん	67.9	매형	59.5	おにいさん	60.7
형수	25.9	이름+さん	32.1	자형	39.2	이름+さん	39.3
기타	0.6	-	-	기타	1.3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표11>의 순위 형제인 형님과 누님 배우자의 호칭 실태를 보면 한국어의 경우, 형님 배우자는 ‘형수’와 ‘형수님’, 누님 배우자는 ‘매형’과 ‘자형<sup>8)</sup>’이 90%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어는 주로 「おねえさん」과 「おにいさん」이 사용되며 「이름+さん」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위 형제인 형님과 누님 배우자를 한국어는 별도의 친족명칭으로 부르고 일본어는 혈족의 순위형제와 같은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수도권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형(妹兄)’을 사용하고 경상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자형(姉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자의 의미로 보면 ‘妹’가 손아래 누이란 뜻이기 때문에 누나의 남편은 윗누이 ‘姊’를 사용하여 자형(姉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다.

## 5.3.2 남동생과 여동생 배우자 호칭

&lt;표12&gt;동생 배우자 호칭의 한일비교(%)

남동생 배우자				여동생 배우자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제수씨	91.9	이름+さん	58.6	매제	73.5	이름+さん	42.9
제수	3.8	이름+ちゃん	37.9	○○아빠	14.8	이름+くん	42.9
○○엄마	4.4	기타	3.4	이름	5.2	성+さん	7.1
-	-	-	-	기타	6.5	기타	7.1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표12>의 남동생과 여동생 배우자의 호칭 실태를 보면 한국어의 경우는 ‘제수씨’와 ‘매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어는 배우자 동생 호칭과 마찬가지로 남동생 배우자는 「이름+さん/ちゃん」으로 부르며 여동생 배우자는 「이름+さん/くん」으로 부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손아래 형제인 남동생과 여동생 배우자도 한국어는 별도의 친족명칭으로 부르고 일본어는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라도 이름에 「さん」「くん」「ちゃん」과 같은 인칭접미사를 붙여 부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보다 연하이지만 한국어는 ‘제수’라는 친족명칭에 상대를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인칭접미사 ‘씨’를 붙여서 부르고, 일본어는 이름에 「さん」을 붙여서 부른다는 점에서 인척관계라는 심리적 거리감이 한일 양 언어의 호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마무리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가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호칭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대조, 분석했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어의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는 상대가 자신보다 연장자이든 연소자이든 혈족과 다른 별도의 친족호칭을 사용하고 이름,

연소자 시점 호칭, 종자명 호칭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2)일본어의 경우, 상대가 배우자의 형님과 누님 및 형님과 누님의 배우자처럼 자신보다 연장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혈족의 형제자매 호칭과 동일한 친족명칭을 사용하고, 「이름+さん」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상대가 배우자의 동생 및 동생의 배우자처럼 자신보다 연소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친족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름+さん/くん/ちゃん」으로 부른다. 그러나 한국어 인척호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연장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어 인척호칭과 다른 점이다.

(3)한일 양국의 배우자 형제자매 호칭에는 배우자간 양성불평등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런 요소는 한국어가 훨씬 더 많다.

#### <参考文献>

- 강병주(2011) 「한일 친족호칭에 대조연구」 『일본어문학』53, 일본어문학회, pp.1-126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화법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11)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원
- 김구선(1983) 「친족호칭어 분류유형 연구」 『國語教育論志』10, (大邱教育大論文 集18集別冊), 대구교육대학, pp.63-82
- 도은진(2000) 「친족명칭의 일한비교연구」 『어문학연구』10,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pp.1-18
- 박경·안병곤(2007) 「한중일 친족호칭 비교연구」 『일본어교육』 40,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pp.193-220
- 왕한석(1989) 「택호와 종자명 호칭」 『先清語文』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24-47
- 이광규(1984) 『사회구조론-문화인류학-친족편』 일조각
- 林炫情(2001) 「韓國語と日本語の呼稱に關する社會言語學的研究-親族間の上下による使い分けの現像を中心に-」 『일본학보』48집, 한국일본학회, pp.61-75
- 조태린(2011) 「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 측면」 『사회언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pp.159-186
- 홍민표(1999) 「한일친족호칭의 대조적 고찰」 『일본어학연구』1, 한국일본어학회, pp.277-292
- \_\_\_\_\_ (2012) 「부모의 형제자매 호칭에 대한 한일 대조 연구」 『일본어문학』58, 일본어문학회, pp.85-102
- 鈴木孝夫(1973) 『ことばと文化』 岩波親書
- 渡辺友左(1978) 「親族語彙の全国概観」 日本方言学会・柴田武編 『日本方言の語彙-親



族名称・その他』三省堂、pp.27-42

접 수 일: 12월 30일

심사완료: 1월 25일

게재결정: 1월 29일

## &lt;Abstract&gt;

**A sociolinguistic study on kinship terms in Korean and Japanese**

- Focused on relation by marriage -

This paper carried out a survey (conducted in July-September, 2011) of the use of the terms of address for siblings of spouses and spouses of siblings in Korean and Japanese. The important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Korean language, basically different kinship terms from the ones for consanguinity are used for addressing siblings of spouse and sibling's spouses regardless of age differences. As a secondary use, first-name, the terms from the viewpoint of the youngest member of the family and teknonymic terms are also used. (2) In Japanese language, basically the same kinship terms as the ones for siblings of consanguinity are used for elders such as elder brothers and sisters of spouse or spouses of elder brothers and sisters. Secondly, first-name + san is also used. However, for younger ones such a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of spouse or spouses of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first-name + san/kun/chan etc are used the most because there is no addressing term for younger siblings. (3) There are some elements of inequality of the gender among spouses in the addressing terms for siblings of spouse in both Korea and Japan, but there are much more elements in Korean than Japanese.